‘해남미소’ 설맞이 기획전 7억6000만원 매출 성과

농수특산물 선물세트 인기 해남 480개 농어가 입점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 설맞이 기획전 매출이 7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해남미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으로는 농수특산물 선물세트가 꼽히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직영 온라인쇼핑몰 ‘해남미소’ 가 설 명절 기획전을 통해 7억 6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설 명절 전 1개월간 진행된 이번 기획전을 통해 해남미소 입점 74개 업체가 참여해 할인판매 등을 통해 설맞이 행사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설 기획전에 비해 4000여만원 매출이 증가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해남미소 명품 꾸러미 세트로 3억6000여만원을 기록해 명절 히트상품의 명성을 확인했다.

해남미소 꾸러미 세트는 명절 시즌에만 선보이는 선물세트로, 해남의 인기 특산물로 다양하게 구성해 매년 명절 조기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 활전복(3000만원), 반건조 생선(2600만원), 해남김(1700만원), 고구마(1600만원), 한우(1600만원), 해남 브랜드쌀(1100만원) 등이 뒤를 이어 인기를 끌었다.

해남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우리 농수산물로 실속있게 명절선물을 준비하자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해남미소의 기획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열리는 그린해피데이 행사 등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해남미소를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에서 직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해남미소’는 관내 480개 농어가가 입점해 1500여 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남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엄격한 품질 관리로 지난해 156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국 최고 공공 쇼핑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함평군, 개물림·사회재난 등

함평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을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는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기존 21종에서 24종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을 300만원으로 올렸으며 이태원 사고로 이슈가 된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함평=신재현 기자

‘모바일 목포사랑상품권’ 출시 QR 결제… 개인당 월 30만원

목포시가 목포사랑상품권 모바일(QR) 간편결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결제방식 다양화에 나섰다.

목포시는 현재 발행 중인 지류형·카드형 상품권에 모바일(QR 결제형) 상품권을 추가로 출시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용자는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상품권 환전을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해 구매 충전 후 사용내역, 잔액 등을 확인하고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식한 후 지문이나 간편비밀번호(PIN)로 인증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도는 6% 할인된 금액에 개인당 월 30만원이다. 발행 규모는 연간 약 150억원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강진군 ‘아르코타운으로 갈랑가’ 문화 프로그램 성황

강진 아르코공연연습센터와 강진군가족센터가 주관한 ‘아르코타운으로 갈랑가’ 어린이 캠프가 강진 아르코공연연습센터에서 진행됐다.

강진군 제공

“휴대전화 컬러링 신청하세요” 강진군, 출향인까지 확대 시행

강진군은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서비스를 군민과 출향인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강진군청 직원만 가능했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통화연결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통화연결음은 휴대전화 연결 시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까지 전화를 건 상대방이 설정된 연결음을 듣도록 하는 서비스다. 단순한 통화연결음 대신 군이 설정한 홍보 안내 멘트가 나온다.

지역 소개나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축제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 행사내용을 알리거나 재난·안전 등 군민들이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도 통화연결음을 활용할 수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군정 성과향상 TF팀 구축 진도군, 3개분야 구성

진도군은 군정 성과향상 TF팀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군정 성과향상 TF팀은 고향사랑기부제, 인구늘리기, 기후변화대응 등 군정 주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3개 분야를 구성, 첫 회의를 최근 개최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인구정책실 등 18개 부서의 실·과장 등이 참여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췄다.

TF팀 첫 회의는 분야별로 △고향사랑기부제 △인구늘리기 △기후변화대응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주제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신규사업 발굴과 실천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

군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 상황 보고 등 매월 정기 회의를 계최할 예정이다.

진도군 군정 성과향상 TF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를 만들고 군정 성과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해조류 양식장 소개 감사’ 완도군, NASA 초청 타진

완도군이 청정 해조류 양식장을 전 세계에 소개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고위 관계자를 완도로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NASA가 지난 2021년 4월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완도지역 해조류 양식장 사진을 게재해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오는 5월 완도해양치유센터 준공식에 NASA 고위관계자 초청을 추진한다.

완도군은 최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초청 서한문을 외교부로 보내 NASA 측에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신우철 완도군수는 박진 외교부장관을 방문해 NASA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초청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완도군 관계자가

NASA를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내용도 담았다.

완도군이 NASA에 감사를 표시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4월23일, NASA의 지구전망대(Earth Observatory) 사이트에 완도지역 해조류 양식장 사진이 소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19일 미국 NASA 인공위성인 랜드샛 8호가 촬영해 보내온 이미지로 완도해역의 청정 해조류 양식장을 담고 있다.

NASA는 완도해역의 온난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로 인해 해조류 양식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해조류 양식은 담수나 비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대기중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NASA가 완도해역 친환경 해조류 양식과 해조류 가치에 주목한 점은 의미가 크다”며 “NASA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완도해조류에 대해 미국측과 공동연구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완도=최경철 기자

완도 첫 전남체전 D-100일 성공 준비 박차

완도군은 1일 제62회 전남도체육대회 D-100일을 맞아 성공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체전은 ‘청정바다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체전’이라는 구호 아래 오는 5월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다.

완도군은 이번 체전을 200만 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희망 체전, 스포츠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성공·참여 체전, 안전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안전·경제 체전, 남도의 멋과 맛이 어우러진 문화·관광 체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전남체전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포스터, 마스코트, 엠블럼 등 대회 상징물을 확정했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전의 하이라이트인 개·폐회식 공개행사를 위해 ㈜램프와 계약을 맺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선수들이 원활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주경기장인 공설운동장을 비롯해 종목별 경기장 시설 개보수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대회 기간 중 완도를 방문하는 선수와 관광객들에게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노점상 단속 등 환경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숙박업소와 식당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완도군은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기 보조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각 종목별 경기 용품 등 경기장 최종 점검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체전 조직위원장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200만 전남도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신안군 ‘섬 겨울꽃 축제’ 성료 전국서 6만명 찾아

신안군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압해도 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린 ‘섬 겨울꽃 축제’가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1004섬, 애기동백으로 물들다’란 주제로 열린 섬 겨울꽃 축제에 전국에서 여행객들이 6만여명이 다녀갔다.

축제장에는 애기동백꽃을 주제로 만든 포토존이 운영됐으며 관람객들은 새해 소망을 적어 나무에 거는 ‘소원지 쓰기’와 느린 우체통에 넣은 겨울꽃 엽서를 여름꽃 축제에 맞춰 받을 수 있는 ‘나에게 보내는 엽서 쓰기’ 등의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저녁노을미술관에서는 ‘섬 겨울꽃 회화전’이, 축제장에서는 신안군 농수특산품과 애기동백 기념품을 판매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50여 일간 진행된 섬 겨울꽃 축제가 눈내리는 겨울바람 속에서도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됐다”면서 “4000만 송이 애기동백꽃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이 됐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